

KIA 오키나와 캠프 연습경기 관전포인트 세 가지

- ① **승리** 부임 첫 캠프 9전 전패 김기태 감독, 이기는 경기 할까?
- ② **변신** 투구폼 바꾼 한승혁·날씬해진 나지완·유격수 김주형 효과는?
- ③ **떡잎** '예비 거포' 박진두·황대인·최원준 방망이 성적은?



김기태 감독

KIA 타이거즈가 13일부터 연습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흥미롭게 연습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

지난 8일 미국 애리조나 캠프조가 베테랑들이 기다리고 있던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을 하면서 KIA의 스프링 캠프는 본격적으로 올랐다. 합동훈련을 하면서 새 시즌을 위해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은 13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돌입한다. 경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첫 번째 관심사는 '김기태호'의 두 번째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의 성적이다. 지난해 고향팀에서 첫 스프링캠프를 맞은 김기태 감독은 '패장'이었다. 9번의 연습경기의 전적은 9패. 여기에 9경기의 실점이 무려 103점에 이르렀다.

김기태 감독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과감하게 경기를 하라"고 독려했지만 선수들은 전패 행진 속에 고개를 숙였다. 우려와 달리 진짜 시즌은 연습으로 출발했지만 난감했던 스프링 캠프였다. 승패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기면서 배우는 것이 좋다.

'도전'에도 눈길이 쏠린다. 2016시즌을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이들이 있다. 강속구파 한승혁이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투구폼 수정에 나서면서 땀을 흘렸고, 나지완은 살을 깎는 고통 속에 달라진 모습으로 방망이를 휘둘러 왔다. 전천후 내야수 김주형은 공격력 강화 측면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유격수 연습을

했다. 13일 첫 연습경기에서 한승혁이 달라진 폼으로 실전에 나서는 등 변화의 시간을 보낸 이들의 움직임도 관전포인트다.

말로만 듣던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주니치를 시작으로 아쿠르트(14일), 요코하마(17일), 라쿠텐(18일), 삼성(19일), 히로시마(22일), 요미우리(23일), 니혼햄(24일), SK(26일), 한화(27일), LG(29일), 넥센(3월1일)까지 12차례의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다양한 투수들을 상대해 볼 수 있는 시간. 좌타 거포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박진두와 아무진 고졸 신인 최원준이 다양한 공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 지난해 스프링캠프 '삼진왕'인 황대인의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구가 그리웠던 팬들에게 기록지를 열어보는 재미가 있는 연습경기. 그러나 선수들에게는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어려운 시간이다.

앞서 선수들은 체력에 조정을 맞춰 훈련을 해왔다. 여기에 장거리 이동 속 캠프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은 바닥으로 내려가 있다. 본격적인 경쟁까지 시작되면서 선수들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 가장 부상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현재까지는 어깨가 좋지 않아 오키나와 대신 광주로 이동한 투수 박준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상 소식은 없다. 캠프의 결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연습경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집 나간 골키퍼 10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 콘솔에너지센터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뉴욕 레인저스와 피츠버그 팅킨스와의 경기에서 뉴욕의 케빈 헤이즈(13번)가 피츠버그 골키퍼 마크 안드레 플러리의 블로킹을 되받아쳐 점수를 얻고 있다. 이날 뉴욕 레인저스는 3대0으로 승리했다.

마이크 잡는 서재응

SBS스포츠 해설자 변신



지난달 은퇴를 선언한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서재응(39)이 마이크를 잡는다.

스포츠 전문채널 SBS스포츠는 "서재응이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돌아온다"면서 "2016시즌부터 이순철, 안경현, 이종열, 최원호 위원과 함께 SBS스포츠의 프로야구 중계석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서재응은 1998년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 입단해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약하며 118경기에서 28승 40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했다.

2008년 국내로 돌아와 KIA에 입단한 그는 8시즌 동안 활약하며 164경기에서 42승 48패 4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겼다.

서재응은 "야구를 계속 보면서 더 공부할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순철 전 코치께서도 강력하게 권유해 주셨다"고 해설자로 데뷔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내가 아는 대로 정직한 해설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막 시작한 제2의 야구 인생을 지켜봐 달라.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BS스포츠는 "서재응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은 물론 선수 심리까지 이해하는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숫자로 본 2016 프로야구

27.4세 182.7cm 86.2kg

KIA 최영필 41세 '최고령'
롯데 최준석 130kg '최중량'

'27.4세, 182.7cm, 86.2kg'가 2016시즌 프로야구 평균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6년 KBO 소속 선수 등록 인원 및 연봉 자료 등 각종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10개 구단의 선수단은 감독 10명, 코치 230명, 선수 616명 등 총 856명이다. 616명의 선수 중 신인은 61명, 외국인 선수는 29명이다.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305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투수에 이어 내야수 151명(24.5%), 외야수 110명(17.9%), 포수 50명(8.1%) 순이다.

KIA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24명, 선수 59명(신인 7명, 외국인 3명) 등 83명을 등록했다. 투수 28명, 내야수 15명, 외야수 11명, 포수 5명이다.

프로야구 전체 평균 연봉은 27.4세로 지난해(27.5세)와 비슷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평균연령(26세)에 비하면 1.4세 증가했다. KIA의 베테랑 투수 최영필은 1월31일 등록일 기준 41세 8개월 23일의 나이로 최고령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만 18세 1일로 최연소를 기록한 LG 신인 내야수 김주형과는 무려 23세 8개월의 차이가 난다.

KIA의 평균 연령은 27.4세. 한화가 29.4세로 가장 많고, 넥센이 25.6세로 가장 적다.

평균 신장은 182.7cm로 지난해와 같고, 평균 체중은 지난해 85.5kg에서 0.7kg이 늘어난 86.2kg이다. 1982년 평균 신장 176.5cm보다 6.2cm 증가했고, 몸무게도 73.9kg에서 12.3kg가 늘었다.

최장신 선수 타이틀은 순천 효천고 출신의 두산 투수 장민욱(207cm)이 차지했다. 역대 최단신인 김선빈(164cm)이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가운데 올해 최단신 선수는 두산 투수 박성민, 삼성 외야수 이상훈(171cm)이 됐다. 최장신과 최단신 선수는 36cm 차이가 난다. 최중량 선수는



130kg의 최준석(롯데), 최경량 선수는 한화 루키 강상원(64kg)으로 두 선수의 몸무게 차이는 66kg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6,200,000

1군 평균 연봉 2억... KIA 1억9611만원 10개 구단 중 7위

한화 김태균 16억 1위... KIA 윤석민 12억5천 '투수 최고'

프로야구 1군 평균 2억 원 시대가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1일 발표한 2016년 KBO 소속선수 등록 인원 및 연봉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10개 구단 상위 27명의 연봉 평균은 2억 1620만원이다. 27명은 1군 엔트리 등록 인원수로 이번 계산에서 외국인 선수는 제외했다.

지난해 구단별 상위 27명의 연봉은 1억9325만원, 올해는 11.9%가 상승하면서 2억을 넘어섰다. 1군 리그만 운영되던 프로야구 원년(1982년) 구단 평균 연봉이 1215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8배가 상승한 수치다.

한화의 상위 27명의 평균 연봉은 3억3241만원(총액 89억7500만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1위로 나타났다. KIA의 상위 27명의 평균 연봉은 1억9611만원으로 넥센(1억2600만원), kt(1억2985만원), NC(1억8748만원)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다.

프로야구 전체 소속선수 526명의 평균 연봉은 1억2656만원이다. 지난해 8635만원이었던 KIA의 소속선수 평균연봉은 올 시즌 41.8%가 증가한 1억2243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에서도 한화가 1억7912만원으로 최고액을 장식했다.

역대 연봉자도 지난해보다 8명이 늘었다. 올 시즌 1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148명으로 전체 526명의 28%를 차지했다. 한국 프로야구 처음으로 역대 연봉을 받은 선수는 1985년 장명부(삼미 슈퍼스타즈·1억484만원)로, 1997년 처



음으로 역대연봉자가 두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 세지릿수(110명)로 늘어난 역대 연봉자는 올 시즌 148명으로 최대 기록을 썼다. 4억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도 52명에 이른다.

한화 김태균은 올 시즌 16억원을 받으면서 5년 연속 '연봉킹' 자리를 지켰다. 1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도 김태균을 필두로 윤석민(KIA·12억5000만원), 정우람(한화·12억원), 이승엽(삼성)·장원준(두산)·최정(SK), 강민호(롯데·이상 10억원) 등 7명이나 된다.

한편 KIA의 역대 연봉자는 윤석민, 양현종(7억5000만원), 이범호(6억5000만원), 김주찬(5억원), 나지완(2억원), 김병현·김원섭(이상 1억5000만원), 심동섭(1억4000만원), 임준혁·최영필(1억3000만원), 김진우·김민우·신종길(1억2000만원), 김광수(1억원) 등 14명에 이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